



교회의 문을 열자

-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

처음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부터,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의 일년간을 「자비의 특별 회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교황께서 특별 회년의 시작을 12월 8일로 선택하신 것은, 그 날이 바로 제 2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의 일요일인 12월 13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비의 특별 회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 주교좌 라테라노 대성당의 성문 (聖門, Porta Sancta, holy door)을 여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날, 우리 나고야 교구도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의 문을 열고 출발 하고자 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순례(여행)하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순례(여행)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목적(방향성)과, 순례(여행)를 하면서도, 지쳤을 때나 길을 잃고 헤맸을 때에 항상 되돌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양자가 있음으로 해서 순례(여행)를 하는 의의와 순례(여행)를 하는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 바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목적지이며 항상 되돌아갈수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길이어서 좋다」라는 확신과, 「이 길을 산다」는 기쁨으로 순례(여행)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순례(여행)를 한다는 것은 결코 같은 곳에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 갑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제 2 바티칸 공의회 개회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온한 도성처럼 감싸 주던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복음화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임무는 열정과 확신으로 신앙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을 각성하였습니다.」

(『자비의 특별 회년 칙서』 4).

우리들은 항상 약속의 땅을 향해서 「탈출((Exodus)」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 곧 하느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내세에 있어서 완성되지만,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이 세상에서 실현해 갑니다. 우리들은 그 때문에 파견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격려를 받으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분쟁에, 화해와 일치가 생겨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 가야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고야 교구에 파견되어, 여러분과 맡겨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특별 회년」의 시작과 함께, 나고야 교구가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기본방침

아버지 이신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나고야 교구가 부분 교회¹로서 해야 할 사명을 다합니다. 그 사명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봉사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그리스도안에서 「당신은 하느님께 사랑받고 구원에 초대되어 있다」는 기쁨의 복음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하고 나타냅니다. 새로운 열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2.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고 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곧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없다는 것에 격려를 받으며, 희망을 가지고 인간들을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르고(에페소서 2:14), 그리스도의 정의에 기초를 두는 평화(화해)를 이 땅, 저 땅 (in terris)에 실현 할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행동해 갑니다.
3. 이들 사명에 파견될 힘의 원천이 되는 교회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 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한사람 한사람이 「세례의 소명」(고유의 소명)을 깨닫고,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협동해 갑니다.

이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하의 목표를 세웁니다.

①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

※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깊이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계를 맺어 주시는가, 그 만분의 일이라도 체험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 뿌리부터 바뀔 것이 틀림 없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방향은 그 반대이어서 우선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용서)」이 있고, 그 기쁨이 사람을 움직이고, 「좋은 삶의 태도」로 바꾸어 갑니다.
[참고]루카 19:1~10, 루카 7:36~50

※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일어나는 기쁨이나 슬픔을 자기 일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느님의 자비가 전해집니다.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실재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애끓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표현 하십니다(『대칙서』 6). 만일 자신의 구원과 교회내의 안정 이외에 무관심 하다면, 하느님의 자비와는 멀리 떨어진 「단혀진 교회」가 되어 버립니다.

※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사회의 현실, 인간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어린아이들도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¹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서 존립한다.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이다.
(교회법전 368).

구체적인 시도

- ※ 먼저 한사람 한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 현실을 서로 나눔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직장이나 지역,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자자로서의 「지켜야 할 모습」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현실」로부터 출발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지역이나 가정, 직장안에서, 신자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중히 하려고 하는가, 혹은 그 어려움. 어떠한 때에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되었는지등, 할 수 없는 것도 포함시켜 구체적인 나눔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동반자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엽니다. 그 때에,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방향을 재시하시고,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한 걸음 더 내디디도록 재촉해 주시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 ※ 어떤 공동체가 되면, 누구라도 안심하고 받아들여지고,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느낄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실행하고 싶습니다.

② 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목표로 한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느님앞에 평등하고 소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하느님 나라의 내실은 관계성이므로, 한사람 한사람이 저마다 따로따로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의 시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 결과로서 부의 불평등, 빈곤이나 폭력, 차별이나 배제와 같은 죄의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어린이(당시,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나타낸다)를 배제한 것에 대하여 격렬하게 분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라고 말씀하시고(마르코 10:14), 어린이를 껴안은 것은 이 세상의 본디 있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 안에서 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을 중심에 둔 사회의 본연의 자세, 인간 관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옆에 갈 수 있게, 특히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을 맨먼저 예수님의 옆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제일 멀리 떨어져서 봉사합니다. 이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신자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도

- ※ 교구 안에는 사회를 향한 위원회, 곧 원조, 복지 분야, 혹은 난민이나 평화·인권 등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관계하는 위원회가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구로서는 이 위원회가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복음화를 향한 하나의 연결된 움직임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간의 제휴, 그리고 비전을 공유해 갈 것입니다.
- ※ 몇 개의 소교구 등에서는 무료급식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의 원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고야 교구전체를 보면, 소교구 조직 안에 사회를 향한 위원회가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사회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인간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서문). 이들 문제에 관한 교구나 주교단으로부터의 정보나 호소를 공동체에 알리고, 그 요청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교구에 만들 것입니다.

※ 소교구의 구체적인 활동에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활동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활동은 할 수 없어도 같은 목표를 지향하며 사는 것으로 연대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 한 곳(직장, 지역, 가족 등)에서 「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시점」에서 복음적인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각각의 처한 입장에서 서로가 하고 있는 것을 서로 존중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신도, 수도자, 사제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 더없이 소중한 역할로 맺어져,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을 식별하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

서로 다른 은사를 부여받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교회인 것을 자각하고,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선택해 갑니다. 복음선교 추진 전국회의(NICE·1987 년)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교, 사제, 수도자, 신도가 같은 테이블에 둘러 앉아 평등한 입장에서 나눔을 가지고, 일본 교회의 방향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공동체로서 선택해 가는 것을 「식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직자 중심주의도 단순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기 위한 「식별 주의」입니다. 그 식별위에 서서, 사제, 신도가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도

- ※ 이 식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구차원에서의 양성 코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각공동체에서도 구체적인 나눔이나 배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각을 헤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교구평의회(운영 위원회)등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경우,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느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추구하면서 사제와 신도가 같이 상담, 기도하면서 결정해 가는 것 등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회의나 모임 자체도 양성의 장소가 됩니다.
- ※ 이 식별은, 어린이의 진로결정이나 취직, 결혼 등의 중요한 선택의 경우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생각 안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안에서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 ※ 이 식별 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교구의 결정 기관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은, 신도, 사제, 수도자, 주교가 모두 모여서 상의하는 선교사목평의회입니다. 이 회의를 중심으로 교구안의 여러 회의의 본연의 모습, 빈도, 출석자 등을 재검토해 가고 싶습니다.

④ 「국적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 만들기.

나고야 교구의 큰 특징이며 희망의 징표는, 다국적, 다문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구안에 「국적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의 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그것은 「일본인의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생활하는 모든 신자로 구성하는 「일본의 교회」입니다.

구체적인 시도

- ※ 교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외국에서 온 신자가 모국어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강론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교구의 주임사제가 주체가 되어 필요한 언어의 미사를 계획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구내에서도 검토하고 어느 소교구에서 어느 언어의 미사를 하면 좋을지를 정해서 공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제가 없을 경우, 미사 자체는 일본어로 거행하더라도, 성서낭독, 성가, 신자들의 기도 등은 신도자신이 모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1 년에 몇번은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사제를 초대하여, 미사와 피정(묵상회), 고해성사, 그 외의 양성이나 연수 등을 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 ※ 외국어 미사를 할 경우 배려해야 할 것은, 소교구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이라도, 다언어에 의한 「국제 미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나, 매주의 미사때에도 성서낭독이나 신자들의 기도 등에 외국어를 포함 하는것등의 배려가 필요하고, 유아세례나 견진성사를 소교구전체로 축하하는 것 등의 연구도 필요합니다.
- ※ 외국어 미사를 주관 하는 사제들은, 그 그룹의 양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신도에게 모국어 미사가 있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의 교회를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의 소교구에 교적을 두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소교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소교구의 담당 사제들과 상의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 첫번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이 사회의 처해진 형태가 교회와 관계를 맺는 기회를 어린이들에게서 빼앗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를 느끼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몰아부치는 것 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육성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교우관계, 성적, 장래의 진로 등은 10 대의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만, 그 때야말로 어린이들의 상담에 응하고, 복음적인 시점에서의 방향 제시나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큰 신앙 양성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기회를 붙잡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특히 중고생이 되면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나오는 연령층 입니다. 그 의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소교구가 보충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교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다 넓은 지구나 교구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도

- ※ 청소년의 신앙 양성을 위해서 소교구뿐만 아니라, 지구, 교구, 일본 교회 등의 수준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기획에 조금이라도 참가하도록 권합니다. 그 때, 경제적인 면도 포함해서 참가하기 쉽게 소교구의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 ※ 교구입장에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모든 기획이나 정보가 소교구에 정기적으로 전해지도록 배려 할것입니다.

※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로 부터 멀어지는 시기의 사람들을 위한 신앙양성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교구로서 그 시기를 함께 동반하는 사람(어린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두면 그 사람은 정기적으로 접촉할수 있고 진로나 인간 관계의 고민 등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선교회, 수도회, 가톨릭 시설과 함께 하나의 교구로

나고야 교구가 사제의 수도 적고 인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곤궁하던 때에 많은 남녀수도회, 선교회는 너무나 많이 교구를 도와주었습니다. 게다가, 소교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사회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소교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학교, 병원, 기타 시설, 수도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교회의 복음선교의 사명을 짊어진 곳이며, 모든 측면에서 연대,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소교구(지구)는 가까이있는 가톨릭 시설과의 제휴를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수도회, 선교회가 담당하는 소교구의 신도는 교구의 일원이라기보다 담당하는 수도회의 신도라는 의식이 짙은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구사제가 담당하는 소교구에서도 수도회가 담당하는 소교구와는 먼 관계에 있다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누가 담당하더라도 우리들은 모두 같은 나고야 교구의 구성원(교구민)인 것을 의식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의식 개혁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기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제들의 인사 배치와 사제들의 생활비를 포함한 회계의 시스템도 모든 소교구가 하나의 교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마치면서

이 기본방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교구로서 할 수 있는 일, 지구, 혹은 소교구로서 할 수 있는 일 등, 각각의 실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곧 시작할 수 있는 것,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 등 각양각색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떠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가」 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그것을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각각의 현장에서 기본방침을 나눔하고, 그 나눔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가장 가까이서 생각하기 쉬운 목표항목을 선택하고 그것이 소교구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제시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실행하는 도중에 조금씩 살이 붙어,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례(여행)하는 교회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추와 같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추는 그리스도라는 기점에 맺어져 있기에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사에 의한 주님 탄생 예고에 놀라고 동요하면서도 신뢰하고 따라 간 성모 마리아를 본받으며 성령이 우리들을 앞으로 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믿고 문을 열고서 나갑시다.

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축일
「자비의 특별 회년」 시작의 날에

가톨릭 나고야교구
주교 마쯔우라(松浦) 고로(梧郎)